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2월 4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3장 1-12절

설교제목 :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의 답을 가지고 산 인물입니다. 4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약속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기자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묘사합니다.(마3:4) 그 이유는 엘리야의 특징은 털이 많고, 가죽 띠를 띠었기 때문입니다.(왕하1:8) 이것은 마태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로 온 것입니다.(참고 마10:11)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가 열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역사 속에 존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가 진정으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즉 내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3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신학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기 위해서 오늘 3절에서 인용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료를 받고 포로들이 자유를 얻으며 감옥에 갇힌 자들이 석방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가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방민족은 예루살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보았던 바로 그 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기자가 1-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이후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아가므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알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2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존재를 다해 계획과 작정과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

니다. 이러한 회개의 의미로써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6절) 요한의 세례는 진정으로 회개하여 자신의 전존재와 행동이 변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세례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7-8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신분이나 신분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종말의 진노로부터 비켜 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 회개의 참됨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표시도 없는데, 임박한 진로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탄생한 참된 세례자라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다가 깬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롬13:11) 왜 자다가 깨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죽음과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움니버스 식으로 주제를 모아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태복음 24-25장은 종말의 비유를 묶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5:1-13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준비성과 비준비성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마25:3-4) 준비성이란, 늘 잠도 자지 않고, 쉴 틈없이 늘상 긴장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의존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사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이전에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세례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바울은 우리가 자다가 깬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과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앞두고 혹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